



여섯번째 이야기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2020 선교사 사역현장 ②-2]

지난 주 이야기 : 부활절 아침, N자매가 찬양 세미나 참석 차 가던 중에 차 전복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로 인해 교회에 다니면 죽는다는 소문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N자매의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 되었으나 N자매의 엄마인 B자매가 딸의 유언에 따라 그 집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부활절 새벽, 큰 딸(N자매)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B자매는 다시 아이를 갖고 싶어했습니다. 의사로부터 불임 판정을 받고도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후 3년간 매 주 만나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씨앗'교회로 인도했는데, 어느 날 B자매는 '주님께서 한 명의 딸을 데려 가셨지만 더 많은 영의 자녀를 주셨어요. 한 알의 밀알로 희생된 딸의 죽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포기였는지 잘 알았기에 말없이 안아주며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B자매의 고백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큰 딸을 데려 가신지 3년 만인 2015년 부활절 아침 다시 셋째 딸을 주셨습니다. B자매는 고령이고 임신 중에 혈압도 높았는데, 자연 분만하던 중에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빠른 응급처치로 인해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실제로 부활절 아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B자매와 셋째 딸A
2015년 4월 출산 직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짜 맞출 수도 없는 기적이 B자매의 인생에서 일어났고 이 일로 B자매는 평생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B자매는 BEE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세미나 기간에 맞춰 여름휴가를 받아 왕복 3,200Km의 장거리를 왕복하며 네 과목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간증을 쓰는 숙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이해했다며 성경구절을 순서대로 적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왜 자신을 택하셨는지,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고난도 주셨지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세미나를 들으며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듣기만 한 복음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에 들어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뻐했습니다.



전도하는 모습,

현재 양육중인 '생명의 씨앗'교회 청소년부

J도시에서 절망하던 시간들이 바로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느꼈습니다. B자매가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말씀에 깊이 빠져서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리더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B자매가 하늘에서 편히 쉴 딸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으니, 자매를 통해 J도시에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만방에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힘든 그 때에 부활의 소망이란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는 능력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싸워갈 믿음의 경주에서 때론 넘어질 수 있겠지만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부활의 소망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씨로 퍼져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M국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으로 인해 사역 및 모임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속히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해주세요.)

[글쓴이: 뵈뵈 선교사]

현재 M국 D도시에서 사역중이며, TIM 두란노 소속이며 2018년부터 M국 6개 지역 교회 리더들 대상으로 BEE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디도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글: 뵈뵈, 정라: 정주영, 편집: 최선]

BEE의 보석찾기

6. 강문종 장로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재수할 때 몇 달간 집에 잘못 배송된 '가이드 포스트'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시절 '왜 평신도는 성경 공부를 깊이 할 수 없는가'를 고민하다 싱가포르에서 조문상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 BEE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고민했던 것들을 한 방에 해결 되었으며, 지금은 BEE과목과 삶의 현장을 연결하는 노력으로 세미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 미국 중미 남미 기도 테이블 리더를 맡았는데, 처음 BEE에 와서 적응하는데 3년이 걸린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도 테이블 식구들과의 친목도 기도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친목의 균형을 이루고 싶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딸 하나가 있고, 서울 성결 교회에서 예배 및 선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의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 4월 4일(토) 기도모임(6:30)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 BEE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온라인으로 계속 함께 기도해요!



3. 4월 11일(토) 9:30 온라인 세미나 [갈라디아서]가 개설됩니다. 온라인으로 말씀과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